

독학사 학위취득제도

서 문 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 독학사제도의 개념

독학사제도란 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제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학자습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후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방안'에 따른 학위취득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수요증가라는 사회적 현실과 학습자중심의 평생교육 이념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1990년 4월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를 학교교육의 범주를 넘어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시행해보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육의 최적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일정기간의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성격을 띤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의 적정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넘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인간학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활처지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여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취지향적사회(achieving society)건설이라는 새롭고 참신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대학교육체제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고,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정규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이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학습자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자는 스스로의 능동적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1991, 중앙교육평가원)

그러나 1990년도에 예고기간도 없이 성급하게 출발한 이 제도에서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첫 지원자는 8,644명이었고, 이중 3,433명이 응시하여 단 18명(0.5)이 합격되어 제도의 적합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1992년에 시행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 간호학의 경우는 3,218명의 응시자 중에서 단 3명인 0.1%의 합격률을 보여 국회에서 까지도 그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으며, 간호학의 경우도 1997년에는 응시자 106명중 29명(26%)이 합격되고 있어서 관련당국에서도 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본 란에서는 독학사제도의 기본방안, 간호학전공에 대한 독학사 취득현황과 반응, 문제점과 전망에 대하여 간략

하게 논하고자 한다.

조성

독학에 의한 학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독학사제도의 기본방향

1) 학습자 중심의 독학체제

학습자가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위제도이다.

2)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기존 대학과 사회교육을 연계시키고, 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육 수준으로 향상되고 그 내용은 다양화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 학위취득 기회의 다양화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다양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체제를 개방화·다양화 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대학의 개방과 다양화도 시간과 경제여건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잠재적 대학진학 수요자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디서나 원하면 자학자습으로 독학하여 대학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야말로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다양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독학에 의한 학위의 공신력 제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할 때 학위를 남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위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질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 독학체제 정착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3. 독학사 학위 취득과정

1) 정의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함)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대학에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독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을 대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 자신의 경제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소정의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받는 체제 즉, '독학체제'로서 계속교육과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2) 관계법령(1990년 시작)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2차개정 1996. 12. 30 법률 제 5228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6차개정 1997.12. 27 대통령령 제 15550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차개정 1997. 12. 31 교육부령 제 704호)

3) 과정별 시험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수준을 평가한다.

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특집

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라.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전공분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12개)

5) 간호학사 취득과정: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 한 한다.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1992년 독학학위 전공과정에 간호학 전공분야가 개설되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경우 1~3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4단계 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통과하면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 간호사 대상:

1~3단계 시험이 면제되며, 4단계학위취득 종합시험 통과로 간호학사 학위를 부여함

- 단, 대학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4단계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간호사 국가 시험 자격은 주어지지 않음

6) 시험과목 및 배점

- 교양과목 2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중 2과목 선택

- 전공 4과목: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간호행정학, 임상간호학(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 과목별 문항수 및 배점

객관식 25문항(24×2.5 = 60점)

주관식 4문항(4×10 = 40점)

- 합격사정

6과목 총점(600점)의 6할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합격이나 과목낙제는 없다.

4. 학력인정독학사 응시체계

학력인정독학사(대통령령 제 13000호, 1990. 5. 3, 제 7조)는 대학중퇴자, 전문대학 졸업자, 자격증 취득자, 수업연한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자,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장 양성과정, 기타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학력인정 독학자로 총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력인정 독학자는 독학에 의한 학습자와는 달리 단계별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또는 특정과목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단계별 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교육법 시행령 제 8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교양과정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교육법 제 8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편·입학에 있어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정

의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이다.

3)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합격한 자와 수업연한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취득하고자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이다.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과정별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중 문교부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자 양성과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중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독학으로 자기 전공영역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정과정을 수료로 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간호학 독학사 실시 현황과 문제점

대한간호협회는 1991년 3월 독학에 의한 학사고시에 간호학과가 증설분야로 포함됨에 따라 1991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고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호학사 고시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취득제도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1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고시 시험과목을 확정하였고, 1992년 6월 독학간호학사 시험준비 지원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와 1992년 9월 독학간호학사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92년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시험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부를 회수(회

수율 36.9%)한 결과 응답자의 60.0%가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응답(대한간호협회 내부자료). 독학에 의한 간호학사 시험에 관한 높은 관심도는 1992년 실시된 1회 시험에서 나타나 3,218명이 응시하였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 많은 응시자에도 불구하고 3명만 합격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다음 해 제2회부터는 응시자수가 349명, 393명, 175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연도별 응시율 비교(전체 대 간호학과)

연도	응시자N		비율(%)
	전체	간호학	
1992	3,782	3,218	83.1
1993	1,082	349	19.4
1994	2,218	393	17.7
1995	2,547	175	6.9
1996	2,700	132	4.9
1997	2,231	106	4.8

2) 연도별 합격률 비교(전체 대 간호학과)

연도	전체			간호학		
	응시자	합격자	백분율	응시자	합격자	백분율
1992	3,972	147	3.8	3,218	3	0.1
1993	1,082	514	28.5	349	39	11.2
1994	2,218	458	20.6	293	12	3.1
1995	2,547	594	23.3	175	8	4.6
1996	2,211	789	36.7	132	15	11.4
1997	1,872	744	39.7	106	29	27.4
전체	14,622	3,246	22.2	4,273	106	24.8

3) 평가영역에 대한 반응

(1) 적절성

평가영역은 간호행정학이 83.3%, 간호연구방법론과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임상간호학은 44.4%(모성, 아동)에서 50.5%(성인, 정신, 지역)가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2) 난이도 경향

특집

전공과목의 난이도에 대하여 간호연구방법론이 61.1%, 간호행정학과 간호과정론은 72.2%가 적당하다고 반응한 반면 임상간호학은 50.0%에서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44.4%는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목중 특히 임상간호학의 난이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간호학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5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 문항수는 24문항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평가내용에 대하여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행정학, 간호과정론은 83.3%가 간호학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라 응답한 반면 임상간호학은 55.5%가 그렇다고 나타나 출제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

4) 응시자 반응

(1) 독학간호사의 문제점(순위)

- ① 정보부족
- ② 독학사 취득 후 대우문제
- ③ 사회적 인식부족
- ④ 합격을 저조
- ⑤ 과목별 평가영역의 부적절
- ⑥ 시험과목의 난이도
- ⑦ 시험 실시 시기
- ⑧ 기타(체계적인 교과과정 미흡)

(2) 타과목에 비해 합격률이 낮은 이유(순위)

- ① 시험정보가 부족하다. 난이도가 어렵다.
- ② 참고도서가 부족하다.
- ③ 시험과목수가 많다.
- ④ 주관식 비율과 점수가 높다.
- ⑤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 ⑥ 과목별 평가영역이 부족하다.
- ⑦ 기타(선입견 때문에 응시율이 낮다.)

(3) 건의사항(순위)

- ① 사회적 인정
- ② 시험정보 제공
- ③ 문제집 제공

- ④ 난이도 조절
- ⑤ 평가영역의 조절
- ⑥ 간헐 홍보
- ⑦ 주관식 배점비율의 적절성
- ⑧ 학습지침서가 어려움

<평가영역의 적절성 및 평가영역에 의거해서 출제되었는지의 여부>

구분	과목	예 건수(비율)	아니오 건수(비율)	잘 모르겠다. 건수(비율)	계 건수(비율)
전공과목의 과목별 평가영역의 적절	간호연구방법론	13(72.2)	2(11.1)	3(16.7)	18(100.0)
	간호행정학	15(83.3)		3(16.7)	18(100.0)
	간호과정론	13(72.2)	2(11.1)	3(16.7)	18(100.0)
	임상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모성간호학	8(44.4)	2(11.1)	8(44.4)	18(100.0)
	아동간호학	8(44.4)	2(11.1)	8(44.4)	18(100.0)
	정신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지역사회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과목별 평가영역에 의거 출제되었는 지의 여부	간호연구방법론	11(61.1)	1(5.6)	6(33.3)
간호행정학	12(66.7)		6(33.3)	18(100.0)	
간호과정론	11(61.1)		7(38.9)	18(100.0)	
임상간호학	7(38.9)	2(11.1)	9(50.0)	18(100.0)	
모성간호학	7(38.9)	3(16.7)	8(44.4)	18(100.0)	
아동간호학	7(38.9)	2(11.1)	9(50.0)	18(100.0)	
정신간호학	8(44.4)	1(5.6)	9(50.0)	18(100.0)	
지역사회간호학	9(50.0)	1(5.6)	8(44.4)	18(100.0)	

5) 문제점

(1) 평가영역의 부적절성 : 과목별 배점/ 문항수에 대하여

(2) 임상간호학 : 1과목에 5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전공영역별 배점/문항수의 절대 부족의 문제

(3) 시험(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 부족 → 시험준비 어려움

(4) 학사로서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탐색되어야 함

- 전문대의 교과과정 인정
- 임상 실무경력 인정 여부
- 학사자질 측정방법 연구

(5) 독학사 취득 후 사회적 인정 필요 → 제도적 보완 요구됨

독학간호학사 응시이유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가 44.0%,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가 25.8%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승진 및 보수의 보상이 기대되므로”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는 각각 5.3%, 4.7%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 1회 독학사 시험을 치르고 난 뒤 1993년 독학사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1993.7)한 바 있는데, 국립교육평가원의 전공과정 실장은 간호학 독학사 합격률이 낮은 점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독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 타 분야는 1~4단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간호학은 4단계 시험만 실시한다는 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점(50.0%), 변별도가 낮은 문항이 많았다는 점, 수험자의 88.0%가 중간정도의 능력수준이었으나 능력수준보다 상위의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점(35.0%)을 들었다.

그러나 독학간호학사 제도가 실시된 지 5년이 되지만 독학사 시험의 준비기간이 충분함에도 간호학 분야에서의 합격률은 여전히 낮으며, 독학사 응시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6. 전 망

1) 간호학 독학사 인정에 대한 간호교육계의 의견정립

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학사학위를 주기 위하여 질적 수준을 낮추는 교육책은 자칫하면 제도자체의 사회적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정책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질적수준 향상과 사회적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간호학 독학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에 대한 표준화

간호학의 독학학위 제도의 특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간호실무와 직결된 분야로 발전시켜서 특성을 살려야만 “3류 간호학사”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이상적으로 학습자가 지녀야 할 자격은 비판적인 통찰력, 독립적인 사고력, 깊이 있는 분석력이다. 그러므로 교양 및 전공과정에서 통찰력, 사고력, 분석력을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야만 한다.

전공과정은 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창출·전수·활용으로 대변되는 대학의 기능적 특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대학인들의 지적인 삶의 집합체라고 할만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요소이다. ‘전공(major 또는 concentration)’의 의미는 한마디로 전문화과정이다. 전공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각기 한 가지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지적 사고체계를 수립하고, 그 분야의 표상체제를 이해하며 그 분야에 독특한 전문기능과 태도를 익히며, 그 전문분야의 규범과 인습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곧 전공은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전문분야에 사회화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응집시켜 설계해 놓은 것이 전공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식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그 깊이와 폭의 심화는 물론 양과 질이 확산되어야 하며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준비성, 학습자가 요구하는 지원, 이수과정에 따라 경과하는 기간에 어울리는 학습자의 발달이 병행되어야 한다.

3) 평가방법의 개선

본 제도에서는 학습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특집

교수가 출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독학사 시험문제의 내용분석과 이에 따른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과정별 평가문항의 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임상간호학 전 과정별 시험과목은 대학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시험과목 중에서는 특히 임상간호학의 학습분량이 매우 많음에 비교하여 문항수가 적고 배점이 적은 점이 모순이다. 따라서 임상간호학의 각 분야가 한 개의 독립 교과목으로 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전체 간호학과목을 총괄할 수 있고 종합화된 문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학습자료 개발의 필요성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교과서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료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체제가 요구된다.

5) 대학수준에서의 준비교육/계속교육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독학사 취득과정은 원칙적으로 자학자습에 의존해야 하나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도 있다. 즉 기존대학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타 대학 밖에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교육자와 간호행정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간호학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게 함으로써 간호교육자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높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6) 독학사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독학사 학위제도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고등교

육으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지만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순수 독학자들이 정당한 과정의 시험을 치루고 학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마땅히 다른 고등교육제도에 걸맞는 사회적 인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조직, 기구, 기능이 요구되고 독학사 자신들도 질적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값싼 교육”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관에서는 이 제도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독학사 제도는 현존하나 그 활용성이 매우 저조하므로 그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독학사 시험문제의 내용분석으로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발전을 위해 간호교육기관과 교육부에서의 제도적 조직적 발전이 병행할 때 공신력 있는 독학간호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자긍심있는 유능한 간호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중서 외(1989). 독학에 의한 대학학위 인정방안 연구
- 교육정책 토론회(1991). 독학에 의한 학사고시제 활성화 방안
-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1997). 독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안내서(1998). 한국방송대학교 독학학위 검정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평가영역(간호학)(1991). 국립교육평가원
- 독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1997). 대한간호협회